

| 활동 개요 |

대상	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들은 소비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며 일상적인 활동에도 마찬가지이다. 대개의 경우 사회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사회에서와 같은 생활 습관은 따라서 군대는 20여 년을 넘게 살아서 몸에 밴 습관과는 다른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 녹색영웅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일상의 삶이 지구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향후 행동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 				
개발 의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영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 • 일상적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할 수 있다. • 녹색영웅과 군인들의 역할을 함께 비교하여 행위 규범을 만들 수 있다. 				
내용 체계	기후변화의 대응 : 기후변화 완화 및 경감을 위한 개인적 노력				
	내용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차시	차시				★
차시	12차시/12차시	소요시간	2시간		
장소	기후변화교육센터 혹은 부대 내 교육실				
준비물	지도자용	철판, 영웅에 관한 영화 자료, 환경안보 자료, 활동지 2종(활동자료 1, 2)			
	학습자용	노트, 필기구			
흐름도	도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도시)를 지키는 영웅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개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제시한 영웅들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영상물을 시청하고 토론하기 • 장병들과 영웅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기 			
	마무리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녹색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 군부대의 녹색영웅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고, 행위 규범을 서로 정해보기 			



| 활동 내용 및 방법 |

1. 도입(30분)

(1)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유의사항] 이 과정은 일련의 교육과정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앞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상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대응에 관해 두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진행할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선행된 수업의 이수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상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장병들이 알고 있는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유의사항] 장병들은 다양한 영웅에 대해 알고 있다. 수업의 초반에 장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진행되는 것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알고 있는 히어로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사항] 장병들이 이야기하는 영웅들이 어떻게 지구(도시)를 지키는지 특징을 생각나는 대로 다양하게 이야기하게 한다. 이야기를 통해 정리된 영웅들을 칠판에 목록으로 정리해 본다. 진지함과 재미가 잘 어우러지도록 유도한다.

2. 전개(50분)

(1) 지도자가 제시하는 히어로들의 행동양식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추어 비교해 본다.

[활동상세] 지도자는 슈퍼맨과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의 동영상을 준비하여 각각 5분 정도씩 보여주면서 이 두 영웅의 활동하는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의하면서 보도록 지도한다.

[유의사항] 장병들에게는 처음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슈퍼맨과 배트맨을 기준으로 지도자가 정리한 것을 우선 본다. 우선 장병들이 말할 기회를 제공한 후 이 둘을 비교하여 지도자가 정리한 표를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녹색영웅 점수는 장병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한다.

(2) 영웅과 장병을 놓고 비교를 해 본다.

[활동상세] 지도자는 환경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녹색영웅이 판타지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생활에서 녹색영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웅과 국군장병을 놓고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본다.

[유의사항] 장병들이 이야기했던 영웅 중 선택하여 이야기해 본다. 잘 알고 있는 영웅을 선택하여 다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좋다. 장병들끼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소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각 모둠별로 정리한 영웅을 발표해 본다.

[유의사항] 같은 영웅에 대해 여러 모둠에서 이야기했을 경우 어떤 공통 의견이 있었는지 또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경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본다. 같은 영웅에 대해서라도 비교하는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4) 실제로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녹색영웅을 찾아보고 그들이 왜 녹색영웅이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지금 현재 세계의 녹색영웅으로 뽑힌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들이 왜 녹색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 [활동자료 3](여성 녹색영웅들)를 활용하여 그들이 수행한 활동을 찾아보고 정리해 본다.

3. 마무리(40분)

(1)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영웅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활동상세] 지도자는 장병들에게 우리 부대에서 가장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영웅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추천을 하게 하고 왜 추천하는지 이야기해 보게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장병에게 녹색영웅 인증서와 간단한 기념품(배지 등)이나 상품을 수여한다.

[유의사항] 앞서 영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의 행동 양식을 통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보다 비판적으로 행동양식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 우리가 녹색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앞서 말했던 영웅들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이들도 그에 닿아 행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스스로가 녹색영웅이 된다는 의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녹색영웅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준다.



확장활동

부대 내에서 캠페인을 구성해 보고 그린 육군, 해군, 공군, 해병이 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해 본다. (예 : 2010년에 진행되었던 그린히어로 캠페인)

그린스타트 10월 캠페인
G 송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따라잡기
당신도 그린 히어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녹색성장 앞당기기
 가까운 거리를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하면 연간 16,073원 절약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자동차가 쉬면 연간 445kg의 CO₂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회용컵 쓰지않고 탄소가 줄어들기
 하루에 종이컵 5개를 사용하면 연간 20kg의 CO₂가 배출됩니다. 1회용 비닐병지가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립니다.

샤워는 짧게하기
녹색성장 앞당기기
 열수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40% 줄어듭니다. 양치질을 사용하면 매년 최고 9.5L의 물이 절약됩니다.

플러그는 뽑아두기
탄소가 줄어들기
 멀티탭은 잘 보아게 두어 대기전력을 차단합니다. TV 시청 1시간 돌리면 연간 9,042원이 절약됩니다.

그린히어로 녹색생활 수칙 홍보물 다운로드
 그린히어로 녹색생활 트위터 이벤트 참여하기

지구를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그린 히어로(Green Hero)'입니다.
 여러분의 그린 액션을 보여주세요. **레~디 액션!**

- ♪ 이벤트 기간 | 2010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
- ♪ 이벤트 발표 | 2010년 11월 3일(수),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 ♪ 이벤트 선물 | 에코가습기 80명

이벤트 당첨 확인과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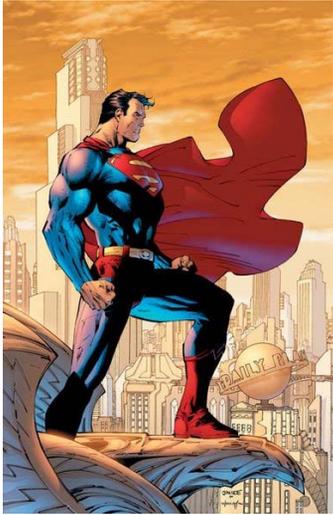
◇ 그린스타트 홈페이지(<http://www.greenstart.kr/>)에 올라온 생활 속 실천 사례를 보고 활용할 수 있다.

| 활동자료 |

[활동자료 1] 영웅 프로필 활동지

슈퍼맨 vs 배트맨

140
page

모습		
이름	슈퍼맨	배트맨
국적	외계인	미국
힘의 원천	맨몸	돈
특징	무동력 비행	밤에만 활동
무기	무지막지한 힘 눈에선 레이저 엄청난 입김	배트카 약간의 무술 온몸에 숨겨진 무기들
생활 방식	소박하게 생활(기자)	대저택에서 단 둘이 살고 있음
친환경성	주로 사람을 도와주고 지구에 크게 피해를 주지는 않음	밤에 악당들하고만 싸우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은 돌보지 않음
기타	여자친구부터 지구까지 두루 살핌	고담시만 지킴
녹색영웅 지수	점	점

사진출처 : 슈퍼맨(<http://news114.tistory.com/33>)
배트맨(<http://mcgmcg.egloos.com/1212589>)



[활동자료 2] 영웅 비교 활동지

☆ 영웅들을 비교해 보자!

모듬원 :	
비교 대상 :	
비교하게 된 이유 :	

모습		
이름		
국적		
힘의 원천		
특징		
무기		
생활 방식		
친환경성		
기타		
녹색영웅 점수	점	점

[활동자료 3] 세계 여성 녹색영웅들

세계의 여성 녹색영웅들



미치코 이시무레(MICHIKO ISHIMURE)

1950년대 일본의 여류시인인 미치코 이시무레는 ‘이 극락세계, 유해한 바다(Pure land, Poisoned Sea : 1968)’로 미나마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렸다. 미나마타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 1959년에 지역 내 화학공장에서 배출된 수은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제인 구달(JANE GOODALL)

영장류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은 탄자니아의 외딴 곳에서 침팬지들과 생활하며 침팬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녀의 연구결과는 이제까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 특유한 본성과 감정을 동물들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었다.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

브룬트란트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이끌면서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최초로 정의하였다. 그녀는 세계보건기구의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

20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왕가리 마타이는 ‘그린벨트 운동(Green Belt Movement)’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였다. 그린벨트 운동은 케냐의 여성들이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게 도와준 풀뿌리 조직이다. 그녀는 여성 권위를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연료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메이 응(MEI NG)

메이 응은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이라는 단체의 홍콩지부 책임자였다. 그녀는 1992년부터 중국과 홍콩을 돌아다니며 86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전국적인 녹색혁명을 이끌었다. 그녀의 노력으로 2000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500인(Global 500 Roll of Honour)으로 선정되었다.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반다나 시바는 인도 출신으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주도적인 활동가 중의 한 명이다. 물리학자이자 친환경 여성운동가인 그녀는 1982년에 '과학과 생태학을 위한 연구재단(the 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and Ecology)'을 설립하였고, 1993년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 생활 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하였다.



마리나 실바(MARINA SILVA)

산림지역에서 태어난 그녀는 16세가 될 때까지 정규 교육을 받아 보지 못했지만, 낮에는 가정부로 일을 하며 야간에 공부를 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벌목한 나무를 압수하고 불법 기업의 활동을 막는 등 아마존 강 유역의 산림 황폐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2007년에 유엔환경계획(UNEP)이 수여하는 '지구환경대상(Champions Of The Earth)'의 수상자가 되었다.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동영상

제목 : Super-heroes



- Connect2Earth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WWF(World Wildlife Fund)가 제작한 영상으로 아무도 세상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코믹하고도 씁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은 눈앞에 어려움에 닥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핫도그를 사 먹는다.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 데에는 영웅이 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작은 실천을 하면 된다는 교훈을 짚은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영상 출처 : YouTube - connect2earth 채널 - You don't have to be a superhero to save the planet,
http://www.youtube.com/user/connect2earth#p/u/30/jEzD_kB3wgs



[참고자료 2] 녹색성장 부대 사례

녹색성장 부대 사례 소개

<p>육군수도방위사령부 1113공병단</p>	<p>육군수도방위사령부 1113공병단 장병들이 3단계 식기세척장에서 자신의 식기를 세척하고 있다. 1차·2차·3차로 나뉘져 있는 식기세척장은 식기 세척 시 발생하는 물 낭비를 크게 감소시켰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113공병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 에너지 절약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13공병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절전·절수 기구 설치 ▲3단계 식기세척 시행 ▲블랙아웃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p> <p>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비선호 메뉴 조리법 개선, 정확한 부식청구 및 식수인원 관리, 주 단위 음식물 쓰레기 추진평가 회의 시행, 민간 조리원소집교육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p> <p>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부대는 육본기준 1인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55g보다 훨씬 적은 10g 이내로 감소시켰다. 또 식기세척 장소를 3곳으로 나누고 절수형 샤워수전을 설치해 월 810톤의 물을 절약했다.</p> <p>또 전력사용량 감소를 위해 하루 3시간씩 블랙아웃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원차단 멀티탭 설치와 절전형 LED 전구 교체 등 각종 절약형 전기 기구를 설치해 기존 전력사용량의 50% 수준으로 감소시켰다.</p> <p>천병규(대령) 공병단장은 “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산출과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가령 gareong@dema.kr</p>
<p>육군60사단</p>	<p>요즘 육군 각급부대는 기존 페타이어 등으로 만든 진지를 걷어내고 친환경적 진지 구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육군60사단은 기존 페타이어 진지를 모두 철거하고 흙벽돌을 활용한 친환경적이면서도 실효성과 보존성을 높인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p> <p>6월 말까지 사단 예하 부대까지 진행되는 친환경 전투진지 공사는 흙벽돌로 진지를 보수하면 과거 페타이어를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산물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사단은 지난 2월부터 흙벽돌 기계 5대를 이용해 2만8,000여 장의 흙벽돌을 직접 제작하고 방수제를 바르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환경변화에 따른 방어 선단 진지를 구축했다.</p> <p>또 기존 진지는 흙벽돌을 이용해 재축성했고, 주둔지 내 대피진지를 구축하는 기지화 공사도 병행했다.</p> <p>사단 관계자는 “전투진지 공사 평가단을 구성해 소요를 염출하는 계획에서부터 실시·완료까지 점검포에 의해 세밀하게 평가해 우수부대를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해 동기부여는 물론 계획된 목표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육군52사단도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개화산 일대에서 기존의 페타이어 진지를 철거하고 흙벽돌 1200장을 활용한 친환경 진지를 구축했다.</p> <p>진지공사를 지휘·감독한 최영호(중령) 대대장은 “이번 친환경 전투진지 공사를 통해 전시작전임무를 100% 완벽히 수행함은 물론, 환경을 보호하면서 서울시민의 보급지리인 개화산 환경미화에도 동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p> <p>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춘계 전투진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단은 흙벽돌 2만여 장을 제작해 책임지역 내의 진지를 이달 27일까지 친환경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가령 gareong@dema.kr</p>

<p>육군22사단</p>	<p>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22사단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운동을 적극 실천, 2주 만에 200여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p> <p>부대가 설치한 에너지 절약 시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타이머 가로등과 센서 가로등. 가로등에 타이머를 설치해 계절별로 해뜨기 50분 전에 가로등이 자동으로 꺼지고 해진 후 50분 후 가로등이 켜지도록 한 것이다. 일부 가로등에는 센서를 달아 주변의 밝기에 따라 빛을 감지한 센서가 스스로 가로등을 켜고 끄도록 했다.</p> <p>또 지난 1월에는 사무실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책상 아래가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절전형 멀티탭 2712개를 설치해 점심시간·퇴근 때의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무실 조명과 모니터를 끄는 것은 기본. 최대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승용차 5부제·카풀제도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장하면서 자전거 출퇴근 운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p> <p>이번 달부터는 복사용지 사용량을 30% 줄이고 사무실에 소수 인원이 근무할 때는 전체 조명 대신 개인 스탠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p> <p>이처럼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운동 결과, 부대는 지난달 4주차와 이번달 1주차 동안에만 그 전 2주간에 비해 전기요금을 200여만 원이나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대 관계자는 “카풀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풀 우수 참여자에게는 주유권을 선물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통해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가영 kky71@dema.mil.kr</p>
<p>해군교육사령부</p>	<p>해군교육사령부 장병들이 업무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설치된 소형 멀티탭의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심 끝에 책상 밑 멀티탭은 그대로 둔 채 전원 차단장치가 달린 소형 멀티탭을 책상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기전력을 잡는 데 성공하면서 정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대기전력이란 전자기기의 전원은 꺼진 상태이지만 콘센트가 연결돼 소비되는 전력을 일컫는다.</p> <p>교육사는 최근 전원 차단장치가 달린 소형 멀티탭을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대기전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사례로 각광받으면서 해군본부 모범사례로 선정돼 이달부터 전 해군부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p> <p>이제 교육사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퇴근시간이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때 책상 위의 멀티탭 전원을 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책상의 멀티탭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도 하루 13~14시간의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게 된 것. 특히 하루 한 격실당 약 2kWh의 전력을 절약하면서 대기전력 차단으로 1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다. 교육사는 사무실과 교육실 등 1,000여 개의 격실에서 연간 약 1억~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이 밖에도 교육사령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빼기 ‘5기 운동’(플러그 뽑기, 전원 끄기, 넥타이 풀기,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걷기)과 자전거 타기 운동, 종이컵 안 쓰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p> <p>책상 위 멀티탭 설치를 계획한 이상구(중령·해사45기) 군수처장은 “사람들이 멀티탭을 바닥에 놓고 쓰다 보니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습관적으로 퇴근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의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용호 yhkim@dema.mil.kr</p>

